

# GROVERSE NEWS

2025.4.2(수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## [주요 내용]

### ○ 탄핵·수사 관련

- 헌법재판소, 4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(WT)
  - 대외현안및정책과제속에서국가리더십공백을해소할중요한전환점
- 현재“윤대통령탄핵심판4일선고” (NYT/Reuters/AP/Bloomberg/AFP/UPI/요미우리)
- 한국을 뒤흔든 윤 대통령 복귀 음모론 (SCMP)
  - 빅터차CSIS 한국석좌“윤대통령운명결정될때까지정치적위기이어질것”
- 한국최고위급당국자들, 수많은법적장애물에직면(Bloomberg)
-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현재의 판결 이후 예상되는 일 (AP)
  - 어떤판결이내려지든국내분열은악화할가능성
-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전개된 주요 사건 정리 (AP)

### ○ 한일중경제통상장관회의

- 中 “한일중, 미국관세에공동대응합의”... 한·일은부인(Reuters)
  - 산업통상자원부“다소과장된주장”, 日 경제산업상“관세관련논의없었다”
- 중국“한일과미관세대응조율목표” (WSJ)
- 한일중협력, 분열된세상에서아시아의중추역할(SCMP)
- 한일중경제통상장관회의한국서개최...3국FTA 협상가속화추진(제일재경)
- 한일중경제통상협력, 5년반만에새로운장 펼쳐(해외망)

### ○ 한미외교차관통화

- 미국무부부장관, 한미외교차관통화서북한'비핵화' 의지재확인(UPI)

### ○ 미국발관세

- 트럼프행정부, 관세부과앞서‘무역장벽’ 보고서발표(NYT)
- 트럼프 관세에 따른 가장 큰 대가는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확실성 (FT)
- 트럼프 관세 우려에 GM·현대 등 자동차 업체 매출 급증 (Bloomberg)
- 아시아PMI, 관세우려증가로공장활동둔화시사(WSJ/Reuters)

### ○ 반도체

- 미상무장관, 반도체보조금확대없이“기업투자확대목표” (Bloomberg)

## ○ 북한

- 트럼프대북접촉시사...“좋은관계” 강조(Bloomberg)
- 트럼프“김정은과‘소통’하고있다” (Reuters)
- 외면당한동맹: 미국의방위전략전환, 대북억지력위협(NK News)

## ○ 안보

- 위험할 정도로 균형을 잃고 있는 아시아 (FP)
- 적대국들의핵무기증강속, 미국의선택지는제한적(WT)

## ○ 한일관계

- 조선인 수몰 해저탄광서 한일 잠수사 공동 조사 (교도)
- 우익 반발 격화에 윤봉길 추모관 개관 연기 (산케이)
- B.C급전범자모임동진회, ‘문제해결완료’ 주장뒤집는회의록공개(도쿄)

## ○ 한국경제

- 한덕수권한대행, 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(Reuters/Bloomberg)
- 한국 3월 수출 2개월 연속 플러스 (Reuters)
- 한국 3월 제조업 경기 위축 (Reuters)
- 한국수출, 관세우려커지는가운데회복세(WSJ/Bloomberg/Reuters)
- 공매도전면금지해제후외인비중90% (Bloomberg)

## ○ 기업

- 현대차, 25% 관세부과에가격인상가능성경고(Reuters)
- 금감원, 한화에어로스페이스3조6000억원규모유상증자제동(Reuters)

## ○ 사회

- 성폭행혐의발던장제원전의원, 숨진채발견(AP)
- 중국계 이민의 역사 보여주는 서울과 인천의 차이나타운 (SCMP)
- 한국프로야구, 관중사망사고로경기중단(AFP)
- 배우김수현, 김새론유족등에120억손배소(SCMP/Forbes)

## 탄핵·수사 관련

**<WT 4.1 서울발> 헌법재판소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(Andrew Salmon)**

-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4일 오전 **11시**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발표

- 현재의 선고는 미국발 관세 대응 등 현안과 중국·일본·북한과의 관계 등 정책 과제 속에서 한국의 국가 리더십 공백을 해소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
-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일 서울에 전국 경찰 인력 중 14,000명을 배치하고 전 인원의 휴가를 취소한 상태

**<NYT 4.1 서울발> 현재,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(Choe Sang-Hun)**

-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
-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되며,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
- 기각되는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나, 계엄령 시도에 분노한 여론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는 커질 수 있음
- 현재는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며, 경찰은 판결 당일 충돌에 대비해 법원 주변 경비 강화에 착수

\* <Reuters> 현재 “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”

<AP>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4일 선고

<Bloomberg> 현재,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

<AFP> 현재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

<UPI> 현재,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

<요미우리> 한국 현재, 윤 대통령 탄핵 일4오전 선고...파면 선고 시 대선으로

**<SCMP 4.1> 한국을 뒤흔든 윤 대통령 복귀 음모론 (Park Chan-kyong)**

- 관측통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음모 관련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혼란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
-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거대 양당이 지지자의 정치적 동원을 위해 불확실성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조직적 노력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
-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가 탄핵심리를 서두르면서 판결을 지연시켜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했다고 지적
-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(CSIS)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의 운명이 확실히 결정될 때까지 정치적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

**<Bloomberg 4.1> 한국 최고위급 당국자들, 수많은 법적 장애물에 직면 (Sangmi Cha, Soo-Hyang Choi)**

- 현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국은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됨.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은 복귀하지만,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레임덕 가능성이 있음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까지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1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고를 받음
-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는 비판을 받았음
- 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힘

**<AP 4.1 서울발>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현재의 판결 이후 예상되는 일 (Hyung-Jin Kim & Kim Tong-Hyung)**

-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.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국내에서 분열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음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탄핵이 현재에서 기각되든 인용되든 양측이 판결을 받아 들이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더 큰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 백우열 연세대 교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재가 기각 하는 경우, 정치 및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 김태형 송실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차기 대통령들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

**<AP 4.1 서울발>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주요 사건 정리 (Kim Tong-Hyung)**

- **12월 9일**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. 12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등과 계엄령을 선포한 공모 혐의로 체포됨
- **1월 15일**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.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주가 넘는 시점
- **1월 26일**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으며, 계엄령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로 묘사
- 수개월간의 심리 끝에 헌재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인용 및 기각 여부를 **9일**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

**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**

**<Reuters 4.1 베이징발> 中 “ 한일중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 합의”...한국과 일본은 부인 (Xiuhao Chen, Ryan Woo, Joyce Lee 外)**

- 중국중앙TV(CCTV) 산하 소셜미디어 채널 위위안탄텐(玉淵譚天)은 3월 **31일**, 한일중 3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

- 이 보도는 5년 만에 열린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에 나온 것으로, 이 채 널은 3국이 공급망 협력 강화와 수출 통제 관련 대화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주장 한국 산업
- 통상자원부는 “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합의는 다소 과장된 주장”이라며, 공식 공동성명을 참조할 것을 권고 일본의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도 회의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였으며, 미국 관세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힘

**<WSJ 4.1> 중국 “한일과 미 관세 대응 조율 목표”**

- 중국은 일본 및 한국과 함께 미국발 관세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려 하고 있다고 중국중앙TV(CCTV) 산하 소셜미디어 ‘위위안탄텐’이 지난달 31일 보도
- 일본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 행동을 조율하기로 한 결정은 없으나, 최근 3국이 5년 만에 3자 회담을 개최하고 무역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발표
-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<월스트리트저널>과의 인터뷰에서 ‘위위안탄텐’에 “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”고 지적
-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3국이 무역 환경에 대해 논의했지만,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언급

**<SCMP 4.1> 한일중 협력, 분열된 세상에서 아시아의 중추 역할 (Wang Huiyao 중국세계화센터 소장)**

-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결과는 긍정적. 무역에서 녹색 개발까지 20가지 합의 사항이 도출됐으며, 연말까지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약속도 합의
- 3 국은 지리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이웃. 이러한 근접성은 3국이 지정학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집단적 강점 활용을 요구
- 한일중 3국 협력은 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하며 분열된 세상에서 3국 협력이 생명선이 될 것. 3국의 무역, 공급망, 문화적 유대감이 차이점을 넘어설 수 있음
-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에서 도달한 합의는 실용주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. 3국의 강점을 활용해 아시아의 세기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

**<제일재경 3.31> [논평]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한국서 개최...3국 FTA 협상 가속화 추진 (가오야(高雅))**

-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림. 회의에서는 제9차 정상회의 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무역투자,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
- 3 국은 WTO, RCEP, APEC 등의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,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공급망 협력수출 통제 대화, 디지털·녹색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

- 쉬슈쥘(徐秀军) 중국사회과학원 연구부 주임은 외부 정책 충격 속 아시아의 과제는 내생적 성장 동력 발굴이라고 강조
- 쉬 주임은 이어 3국 협력의 긍정적 흐름은 역내 협동 발전의 분명한 경로를 보여준다고 평가

**<해외망 3.31> [논평] 한일중 경제통상 협력, 5년 반 만에 새로운 장 펼쳐**

- **30** 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는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, 22일의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이은 또 한 번의 3국 정부 간 고위급 교류
- 최근 일본과 한국 내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,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 개최는 안정적 교류를 갈구하는 3국의 적극적 의지를 표시
- **3** 국은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과 호혜적 상생을 나타내고 있음. 3국은 경제적 구조와 산업적 구도에서 눈에 띄는 상호 보완성을 가짐
- 공동 뉴스 브리핑에서 3국이 ‘한일중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 가속화에 관한 논의 유지’를 확실히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
- 이번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은 경제통상 협력에 새로운 장을 펼쳤으며, 지역 내지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에 지혜와 힘을 기여할 것

**한미 외교장관 통화**

**<UPI 4.1> 미 국무부 부장관, 한미외교차관 통화서 북한 ‘비핵화’ 의지 재확인 (Mike Heuer)**

-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하며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함
- 미 국무부 대변인은 “양측은 지역의 시급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며,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”고 밝힘
- 두 사람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했으며, 김 차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강조. 한편, 랜도 부장관은 산불로 인한 피해에도 애도를 표시

**미국발 관세**

**<NYT 3.31> 트럼프 행정부, 관세 부과 앞서 ‘무역장벽’ 보고서 발표 (Ana Swanson)**

- **31** 일 미 무역대표부가 ‘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’(NTE 보고서)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무역장벽(비관세 포함)이 되는 요소들을 수십 개국에 걸쳐 지적

- **400** 쪽 분량 중 약 50쪽이 중국에 할애. 특히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특정 분야를 '지배하려 한다는 점과, 트럼프 1기의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
- 한국에 대해서는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남아있는 관세와,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장벽, 투자 장벽,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거론

**<FT 4.1> [논평] 트럼프 관세에 따른 가장 큰 대가는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확실성**

- **1980** 년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 자동차 산업을 파괴했다는 비판에 직면. 이제 현대·기아차 등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 무역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됨
- 이번에는 미 무역정책에 따른 대가가 더 심화하고 불안정해진 상황. 보호무역 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
- 오늘날의 자동차는 단일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 수많은 국경 간 거래가 축적된 것. 자동차의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통합 공급망이 구축됨
- 그러나 무역 조치 완성된 자동차에서 자동차 구성 요소로 초점을 옮기면서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부채가 되고 있음
-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는 특히 위태로운 입장. 가장 큰 위협은 관세 자체가 아닌 자본 집약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에 관세가 주입하는 불확실성

**<Bloomberg 4.2> 트럼프 관세 우려에 GM· 현대 등 자동차 업체 매출 급증 (David Welch, Keith Naughton & Gabrielle Coppola)**

-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에 소비자들이 몰리며, 제너럴모터스(GM)와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판매가 증가
- **GM**은 1일 1분기 출하량은 17%, 소매 판매는 15% 증가했다고 발표. 현대차는 투싼과 엘란트라 수요 급증으로 월간·분기 기준 모두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
- **JD** 파워의 데이터·분석 부문 사장인 토머스 킹은 “관세에 대한 전망이 이미 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”고 분석

**<WSJ 4.1> 아시아 PMI, 관세 우려 증가로 공장 활동 둔화 시사 (Amanda Lee)**

-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에 따르면 1분기 아시아 주요국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으며, 미 무역 관세를 앞두고 이 지역 경제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음
- 대만과 한국의 PMI도 1분기 말 운영 환경 악화를 시사. 한국의 기업 신뢰도도 타격을 입어 2022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
- 우사마 바티 S&P 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올해 처음으로 생산이 감소했다고 진단

\* **<Reuters>** 전 세계 공장, 트럼프 관세에 대비

## 반도체

### <Bloomberg 4.1> 미 상무장관반도체 보조금 확대 없이 “기업 투자 확대 목표” (Mackenzie Hawkins, Ian King)

-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, 기존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
- 러트닉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TSMC 선례를 따르길 기대. 보조금 규모 확대 없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
- 동시에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되는 최대 25%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관심. 일부 기업들에는 직접 보조금보다 세액공제가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음

## 북한

### <Bloomberg 4.1> 트럼프 대북 접촉 시사...“좋은 관계” 강조 (Denny Thomas)
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“어느 시점에는” 북한에 손을 내밀 계획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“매우 좋은 관계”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
-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,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“소통하고 있다”며 북한은 큰 핵 국가”이며 김정은은 스마트 가이”라고 평가

### <Reuters 4.1> 트럼프 “김정은과 ‘소통’하고 있다 ” (Jeff Mason & Gram Slattery)
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으며, 북한에 대한 관여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“무언가”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
- 다만 ‘소통’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생략

### <NK News 4.1> : 외면당한 동맹미국의 방위 전략 전환, 대북 억지력 위협 (Jooheon Kim & Shreyas Reddy)

- 최근 밝혀진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’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낮추고, 대북 억제 책임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려는 방침을 보여줌
- 이는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 온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 전환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기존 우려를 재확인
- 에드워드 하월 영국 옥스퍼드대 강사는 “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재교류 의지를 밝혔지만, 현재는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집중하고 있다”고 설명

- 히나타-야마구치 료 도쿄대 교수는 미국이 역내 안보 파트너십을 후순위로 두는 기조가 한일 양국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
-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새 정책은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틀 보다는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추진되는 면이 크다고 지적

## 안보

### <FP 4.1> 위험할 정도로 균형을 잃는 아시아(Stephen M. Walt 하버드대 교수)

- 현재 미국-아시아 동맹에는 중국의 기술력 강화,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한국 야당 대표의 부상, 저출생,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라는 걸림돌이 존재
-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, 대만 방어에 회의적이고 시진핑과 거래하고 싶어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악화
- 또한 트럼프는 관세로 한일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.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한일과의 협력으로 영향력 확대를 겨냥
- 미국이 권위주의로 향하면 한미일 동맹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할 것이며, 결국 미-아시아 상호 신뢰와 결속이 흔들릴 수 있음

### <WT 4.1> 적대국들의 핵무기 증강 속, 미국의 선택지는 제한적 (Ben Wolfgang)

- 중국, 러시아, 북한이 핵전력을 급속히 확장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, 미국은 과거처럼 군비통제를 이끌 외교적 지렛대가 거의 없는 실정
- 로버트 조지프 전 미 비확산담당관은 미·러 간 전략무기감축협정(START)이나 중거리핵전력조약(INF)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곧 만료된다고 지적
- 이 가운데 다가올 러시아-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은 러시아가 트럼프 행정부와 비확산 협상에 나설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

## 한일 관계

### <교도통신 4.1 야마구치발> 조선인 수몰 해저탄광서 한일 잠수사 공동 조사

- 태평양전쟁 중 발생한 수몰 사고로 조선인 등 183명이 희생된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에서, 유골 수습을 위한 한일 민간 잠수사들의 조사가 1일 시작됨 조세이탄광
- 에서는 1942년 2월 해수 유입 사고로 조선인을 비롯해 히로시마와 오 키나와 출신 일본인 노동자들이 숨진 바 있음. 이번 조사는 4일까지 이어질 예정

### <산케이 4.2 도쿄발> 우익 반발 격화에 윤봉길 추모관 개관 연기

- 일본 가나자와시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한국 독립운동가 윤봉길을 기리는 추모관 개관이 연기될 전망
- 윤봉길은 1932년 상해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한 폭탄 투척 사건의 주역으로, 추모관 개관 계획은 우익단체의 반발과 시위가 격화한 데 따른 것

### <도쿄신문 4.2 18면> B·C급 전범자 모임 동진회, '문제 해결 완료' 주장 뒤집는 회의록 공개

-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되어 전범의 멍에를 쓴 이른바 조선인 'B·C급 전범' 단체 동진회가 1일, 창립 70주년을 맞아 일본 국회에서 집회를 개최
- 일본 정부는 동진회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
- 그러나 2005년 한국 정부가 공개한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, B·C급 전범 문제는 "별도로 연구한다"고 명시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음

## 한국 경제

### <Reuters 4.1 서울발> 한덕수 권한대행,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(Jack Kim & Joyce Lee & Jihoon Lee)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의사결정 혼선 및 경영 위축 우려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
-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야당 주도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, 이사 의무를 회사 전체 이익에서 개별 주주 이익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
- 여당과 경제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중소기업과 비상장사까지 포함해 과도한 규제를 초래하고,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
- 주요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이 기업 성장 저해 요인이라며 반대했으며,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일부 반납

\* <Bloomberg> 한덕수 권한대행,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

### <Reuters 4.1> 한국 3월 수출 2개월 연속 플러스 (Cynthia Kim & Jihoon Lee)

- 한국 3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.1% 증가한 582억 천만8달러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힘.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5.5% 상승

- 산업부는 3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.3% 증가한 533억 달러를 기록해 3월 무역수지는 49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부연

**<Reuters 4.1 서울발> 한국 3월 제조업 경기 위축 (Jihoon Lee)**

- 한국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49.1를 기록해 2월의 49.9에 비해 하락
- PMI 는 두 달 연속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기준선 50 아래에 머물렀으며,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

**<WSJ 4.1> 한국 수출, 관세 우려 커지는 가운데 회복세 (Kwanwoo Jun)**

- 한국의 3월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무역 전망에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가운데 회복세를 시사
-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, 3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**3.1%** 증가해 582억 8,000만 달러를 기록
- 이는 3월 수출이 1.7%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경제학자 7명의 중간값 예측치보다 더 높았음

\* **<Bloomberg>** 한국 수출,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앞두고 증가

**<Reuters>** 한국 수출 증가, 관세 위협으로 전망 어두워져...철강 수출 감소

**<Bloomberg 4.1> 공매도 전면 금지 해제 후 외인 비중 90% (Youkyung Lee)**

- 한국이 17개월간 금지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31일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
- < 블룸버그>가 집계한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,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는 총 **1조 2,000억 원** 규모로, 그 가운데 외국인 거래 비중이 90%를 차지
- 공매도가 과열되고 주가가 하락한 후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4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금지됨

**기업**

**<Reuters 4.1 디트로이트발> 현대차, 25% 관세 부과에 가격 인상 가능성 경고 (Kalea Hall & David Shepardson)**

- 현대자동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한 25% 관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, 미국 내 가격 전략을 재검토 중이라고 경고
-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CEO는 딜러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“4월 2일 이후 도매 판매 차량에 대해 현재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며, 변경될 수 있다”고 밝힘

- 전문가들은 새 관세가 지속되면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라, 이미 평균 5만 달러에 육박하는 차량을 소비자들이 더욱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

**<Reuters 4.1 서울발> 금감원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조 6000억 원 규모**

**유상증자 제동 (Jihoon Lee)**

- 금융감독원이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,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지분 구조 재편과 증자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
- 금감원은 지난주 주주들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제동

**사회**

**<AP 4.1 서울발> 성폭행 혐의 받던 장제원 전 의원, 숨진 채 발견**

성폭행 혐의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힘

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, 경찰은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

**<SCMP 4.1> 중국계 이민의 역사 보여주는 서울과 인천의 차이나타운 (Erika Na)**

- 인천과 서울 대림동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중국계 이민자들의 역사와 한중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소
- 인천 차이나타운은 조선 말기 중국 상인들의 정착지로 시작해 번성했으나, 일본 식민 통치와 이후 중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로 쇠퇴
- **1992** 년 한중 수교 이후 복원되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, 짜장면박물관 등 새로운 명소도 부각
- 대림동 차이나타운은 1990년대 이후 조선족 이민자들이 정착하며 형성되었으며, 서울에서 가장 중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

**<AFP 4.1> 한국 프로야구, 관중 사망 사고로 경기 중단**

- 지난 **29**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도중,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20대 여성 관중이 사망
- **KBO** 는 **10**개 구단과 함께 전 구장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, 프로축구 **K**리그도 자체 시설물 안전 점검에 착수

**<SCMP 4.1> 배우 김수현, 김새론 유족 등에 120억 손배소**

- 배우 김수현이 고(故)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
- 이는 김새론이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데 따른 것.  
지난달 31일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며 의혹을 부인

\* <Forbes> 배우 김수현,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부인